

# 고려 중기 多京의 위상

- 首位性を 중심으로

정은정\*

## | 국문초록 |

多京은 경관과 물리적 시설 차원에서, 함께 계수관에 포함되는 牧·都護府보다는 상위의 위상을 지녔다. 동렬 계수관과 마찬가지로 다경에서도 직할읍치의 과밀과 집약도가 높은데다, 2·3단계의 계층화된 지방행정단계를 이용하면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운영되었다.

다경을 포함한 계수관 공통의 관아 공식의례는 외관청사의 객사나 官衛政廳에서 치러진 望闕禮·군대사열, 읍치소 5리 안팎에서 행례된 司寒祭·馬步·馬祖 같은 잡사 항목의 제례, 읍외곽 道界에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사신영접례·榮親儀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표준화시킨 이들 관아 공식 의례는 상주하는 외관의 일반적 업무로 부터 기인한다.

관념상 明堂의 터로서 설정된 서경·동경·남경의 多京은 수도 개경의 기능을 분산 안배하고 천하질서 확장을 모색한 차원에서 경영되었다. 중기 즈음 국왕이 친행하는 明堂儀나 사냥(田獵)은 국초 다경에서 탈락된 동경을 제외한, 서해도·경기 남부의 서경·남경 권역에만 거행된다.

주요어: 다경(多京), 계수관(界首官), 수위성(首位性), 맞이의례, 친행(親幸)

\*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coreacity1@naver.com)

## | 차례 |

1. 머리말
2. 다경의 추이와畿內 편성
3. 인적·물적 차원의 首位性
4. 맞이의례의 층위
  - 1) 관아 공식 의례
  - 2) 국왕의 친행 의식
5. 맺음말

## 1. 머리말

다원성과 포용, 개방을 추구한 고려일지라도 전근대 국가인 이상 중앙 중심의 시스템을 추구한다.<sup>1)</sup> 여러 연구에서 통찰했듯 구심과 원심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고려의 지방사회는 원활히 통제되지만, 어느 한쪽에 편향되었을 때 파열이 생겨났다. 다원성과 계서성 사이를 조율하는 힘, 이것은 수도권과 외방을 통치하는 군현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의 지배와 지방 자율의 호순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고려의 로컬 마당은 界首官이다.

界首官은 界内の 首官으로 관할지역 더러는 통치하는 관리 자체를 칭하기도 한다. 대체로 계수관을 군현체제로 하는 계수관 제도는 京·牧·都護府의 大邑을 지역거점으로 삼아 하부의 촌락 → 속현·주현 → 4·5개 주현·속현 묶음을 하나의 영역으로 한다. 단일한 하나의 계수관에는 외관이 파견된 주현과 예하의 관할 현이 소속되어 있다. 현종·명종대 정비가 일단락된

---

1) 박종기, 「고려 다원사회의 형성과 기원」,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최봉준, 「고려시대 사회성격론과 다원사회의 구조적 이해」, 『역사와 실학』 67, 실학사상연구회, 2018; 이근세, 「다원성과 통합성의 조화 - 고려사회와 라이프니츠의 조화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63,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채웅석, 「고려전기 사회적 분업 편성의 다원성과 신분 계층질서」, 『한국중세사연구』 45, 한국중세사학회, 2016.

것이라 파악되는 고려의 계수관제는 130개 주현과 390개 속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광역 중간단위이다.<sup>2)</sup>

계수관은 위로는 중앙과 아래로는 기층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계수관내 직할읍치에 상주하는 수령은 영역 하부의 외읍을 통제하면서도 중앙에서 파견되어 오는 사신이나 안찰사의 감독을 받는다. 계수관제는 중앙이 자치적·분권적인 외읍을 효율적으로 관할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

지배와 자율의 場인 고려의 지역사회는 매우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계수관을 구성하는 각 지역사례에 천착하여 연혁이나 성립시기, 지형지세를 감안한 구획원리나 역할이 구명되었다.<sup>3)</sup> 최근 계수관 권역이 재정적 국가물류의 수세권을 넘어 시장거래 품목이 이동하는 유통권역이거나 신앙권이라는데 착목한 연구도 있다.<sup>4)</sup>

계수관제는 고려 주속현체제의 형성과 더불어 지방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현종 9년 주현속현제도의 편성을 기초로 한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몇 개의 주현속현 단위를 묶어 계수관 영역이 편성된다. 중앙에서는 경·목·도호부 같은 대응을 계수관으로 삼아 여타 지방지배의 증추로 삼았다.<sup>5)</sup>

- 
- 2) 구산우, 「고려시기 界首官의 지방행정과 위상」, 『역사와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김동수, 「고려의 계수관제 소론-계수관의 범위문제 검토」,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上, 1994; 김아네스, 「고려시대 지방행정과 牧」, 『대구사학』 77, 대구사학회, 2004; 「신라의 州와 고려초 界首邑」, 『신라사학보』 12, 신라사학회, 2008; 박종기, 「고려시대 계수관의 범위와 성격」, 『한국학논총』 21,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8;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출판부, 2000; 「고려전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2017; 윤경진, 「고려 계수관의 제도적 연원과 성립과정-9州 12牧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 3) 박종진, 위의 책, 2017; 정은정, 「서평- 산줄기 물줄기로 본 고려의 지방제도」, 『한국중세사연구』 60, 한국중세사학회, 2020.
- 4) 정은정, 「고려말 동북면 경계의 공간분절과 다층적 권력」, 『지역과 역사』 39, 부경역사연구소, 2016.10; 「12·14세기 경주의 도시 유통권- 線 단위 도시근린성 확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 55, 효원사학회, 2019.6; 「고려중후기 동해안권역의 인프라 구축과 巫圈域 형성」,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5; 「고려후기 경주 任內의 개발과 편제」, 『역사와 세계』 59, 효원사학회, 2021.6.

계수관을 구성하는 경·목·도호부는 주 속읍을 보다 상위에서 관할하는 중간 거점지역이라는 차원에서는 모두 동질적이다. 계수관은 속현을 거느린 주현으로서 또 영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으로서, 上表進賀·鄉貢選上·祭祀奉行을 수행하였다.<sup>6)</sup> 계수관의 범위, 성립 시기, 신라말 州制나 고려 道制와의 상관 관계나 구조, 운영과 기능의 해명까지 이 분야 성과는 거의 일단락된 듯하다.

그럼에도 여태껏 고려 계수관제는 경·목·도호부를 동급으로 묶어 주읍에 대한 상위 역할과 그 운영에 주시하거나 때로는 개별 지역 사례 연구에 치중되어 각각 분산적으로 검토된 감이 없진 않다. 이같은 종전 연구를 보강하려면, 먼저 계수관을 구성하는 경·목·도호부 간 차별의 지점과 위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렬선 위에서 파악되던 계수관 내부의 차별 독자화는 입지·국가의 요구·지역세력과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주시하는 다경은 천도의 대상지역으로서, 동급 계수관인 牧·都護府 보다는 행정 직제나 관제의 여러 면에서 首位性(공적 구심력)이 높다.<sup>7)</sup> 이런 점이 참작되어 직전까지 多京制 연구는 천도론, 순행의 명분으로 도참, 당송 도읍과 비교사에서 활발히 추진되었다. 한층 더 나아가 관인의 외관록 지급액, 의례 때 수행인원과 호위의 숫자, 복식 규정의 분석을 통해서는 삼경 내 서

5) 박종진, 앞의 책, 2017, 93~102쪽; 윤경진, 앞의 논문, 2005.

6) 구산우, 앞의 책, 149~164쪽.

7) 牧·都護府·都督府에 대한 직전까지의 연구는 대개 태조의 통일전쟁과 결부하여 이루어졌다(김갑동, 「목천의 지방세력과 천안부의 성립」, 『역사와 담론』 84, 호서사학회, 2017; 김명진, 「고려시대 장산군의 치소 위치 군현 변천 탐색과 경산」, 『민족문화논총』 8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2; 김아네스, 「고려초기의 도호부와 도독부」, 『역사학보』 173, 역사학회, 2002; 박종진, 「고려시기 상주목 지역의 구조와 지리적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29, 한국중세사학회, 2010; 윤경진, 「고려 태조대 都護府 설치의 추이와 운영-북방 개척과 통일전쟁-」, 『군사』 64, 한국군사학회, 2007; 「고려초기 지방제도 개편과 도호부-안동 안남의 치폐와 이동-」, 『한국중세사연구』 27, 한국중세사학회, 2009; 전덕재, 「나말여초 경산부(京山府)의 설치와 동향」, 『한국사연구』 195, 한국사연구회, 2021; 한기문, 「고려시대 京山府의 성립과 변천」, 『한국학논집』 74,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19).

경·동경·남경의 위계를 파악하기도 한다. 서경·동경·남경 3경의 행정직제는 개경 아래, 일반 領郡의 위에 있어 도호부나 목의 상위에 두어졌다.<sup>8)</sup> 근래 동렬 계수관급 내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의 물리적 격차에 주시하여 다경의 순위매김이 시도되기도 하였다.<sup>9)</sup>

계수관 내 다경의 首位性은 인적·물적 기반과 아울러 의례에서도 지지된다. 다경은 왕이 四時의 순환주기를 맞추어 幸行하는 장소인 까닭에 국왕 행차와 결부지은 상징적 권위체계가 갖추어져야 했다. 天과 君主를 합치시켜 왕실의 天地 제사를 감행하는 제1의 의례도시는 수도이다. 제2 수위도시인 다경에는 천지제사의 다른 버전인 明堂(巡駐)의례가 치러졌다. 명당위 관념은 짧게는 1달, 길게는 6개월을 다경에 체재해야 하는 국왕의 긴 행차에 명분을 부여해주었다. 후일 軍禮에 편성될 국왕 주도의 사냥(강무), 군대사열(열무)도 주로 순행권인 서해도나 남경 일대에서만 행해졌다.<sup>10)</sup> 계수관 급 내에서도 위계가 높은 다경의 위상은 국왕이 친행하는 명당 의례나 사냥(후일 강무의례) 행차에서 모색할 수 있겠다.

이 글은 계수관을 구성하던 경·목·도호부를 首位性(=공적 구심력의 강도)의 관점에서 서열화하여 동급으로서의 공통성 보다는 그 차이점(독자성)에 주시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첫째 다경에만 특화되어 편성된 畿內制, 둘째 여느 계수관 단위에서 공통으로 치러지는 관아 의례 위에다 다경에서만 행례되던 특수한 의식을 들어, 공간과 의례 두 축에서 다경의 首位性을 자리매김코자 한다.

8) 김도연, 「고려시대 서울 연구의 흐름과 과제」, 『서울과 역사』 100, 서울역사편찬원, 2018; 김철웅, 「고려 국왕의 남경 순행과 의례」, 『서울과 역사』 85, 서울역사편찬원, 2013; 정은정, 앞의 책, 2018, 20~22쪽; 홍영의, 「고려시대 남경 경영의 배경과 공간 영역」, 『한국중세사연구』 68, 한국중세사학회, 2022.

9) 정은정, 「고려 多京 의례의 위계와 그 성격」, 『역사와세계』 61, 효원사학회, 2022.6, 23~30쪽.

10) 정은정, 「元 수도권 정비와 고려 궁궐의 변화」, 『역사와세계』 76, 부산경남사학회, 2010, 45~53쪽.

牧·都護府를 상호 대차하고 또한 지역 내부에서 치러진 관아 공식 의례나 지역성을 드러내는 고유의식을 검토하여, 영역 마다를 일일이 대조해야만 경과 이하 계수관 내부의 위계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여기까지를 다루기엔 할애된 지면이 부족한데다, 역량도 모자란다. 여러 여건상 계수관 내부의 위계를 首位性 관점에서 따져보아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부족하나마 본 글의 소임을 다하려 한다. 미진한 부분을 비롯하여, 고려 국내 질서의 이완에다 원간섭이 가중되는 13·14세기 이후의 변화는 추후 별고를 통해서 살피겠다.

## 2. 다경의 추이와畿內 편성

군현제는 국가권력이 지방사회를 편제하는 장치로서, 행정수행과 치안 유지·부세수취·체제 안정을 염두하여 중앙과 지방사회간 긴장과 갈등을 조율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고려의 군현제는 국초 군현읍명의 개정과 내속·영속관계를 거쳐, 거점 지배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군현의 읍명 개정은 태조대부터 추진된 위에다 현종 9년에는 군현의 仍屬·來屬 관계가 정비되었다. 현종 9년에 앞서 성종 2년 12牧을 설치하여 전국 단위로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성종 당시는 향리 직제를 개편하는 방향에서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sup>11)</sup>

성종대 12州牧 지역은 신라통일기의 9州 5小京 위에 설정되었다. 이념적으로는 禮記·孟子·周易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지방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목적에서 12牧의 설치가 이루어졌다. 지역을 12牧으로 구획

11) 박종기, 『새로쓴 오백년 고려사』, 휴머니스트, 1999, 99~108쪽; 박종진, 앞의 책, 2017, 92~103쪽; 김기섭, 「고려 태조대 군현 개편의 과정과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2006, 30~39쪽.

한 것은 지형지세를 감안하여 교통 물산의 집산처, 행정적 중요도를 안배한 결과이다. 12州牧은 지방통치의 구심으로 예하 군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였다. 같은 왕 14년 10道와 節度使 체제는 후일 현종 9년의 주현·속현 제도라는 새로운 지방지배로 편제될 기초적 틀을 짜주었다. 주현속현단위의 편성과정에서 중심 군현이 될 주현은 건국 후 정치·군사적으로 중요도가 커진 곳도 포함되었다. 주·속현을 한 묶음으로 하는 계수관제는 고려 지방제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 계수관제의 정비는 대개는 현종 9년 시작하여 명종 연간 일단락된다.<sup>12)</sup>

계수관은 외관이 파견된 주현과 관할 속현으로 구성된 광역 단위이다. 그 운영은 京·牧·都護府의 大邑을 계수관으로 삼아 지역지배의 중심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계수관 권역은 하부의 촌락 → 속현·주현 → 4·5개 주현·속현 묶음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 통상 주읍 이상의 외읍은 읍치(소) 5리 안팎의 읍내·바깥 교외·任內로 구성된다. 읍치소 범위는 좁게는 치소안, 넓게는 5리 안팎의 邑底까지 포괄한다. 4·5개 주속현을 묶은 계수관 영역은 도심이랄 수 있는 복수의 중심과 바깥의 주변부로 구성된다. 단일한 계수관에는 구조적으로 다중의 지점이 병렬하여 혼재한다.<sup>13)</sup>

계수관 권역 내 복수의 읍치 중에서는 首官 직할읍이 공공재나 인구의 집중이 뚜렷하다. 읍치의 도시중심성은 과밀과 집약으로 구현된다. 이로써 首官이 직할하는 읍치는 계수관 내부의 공간 구조에서도 부지 선정 당초부터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수위 중심지이다.<sup>14)</sup> 복수의 도심과 주

12) 김아네스, 「고려 성종대 유교정치 사상의 채택과 12州牧」,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윤경진, 「고려 태조대 군현제 개편의 성격- 신라 군현제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2, 한국역사연구회, 1996; 「고려전기 계수관의 운영체계와 기능」, 『동방학지』 12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박경자, 『고려시대 향리연구』, 국학자료원, 2001.  
 13) 정은정, 「고려 중후기 경주 直轄邑의 도시중심성」, 『한국중세사연구』 65, 한국중세사학회, 2021.5.  
 14) 정은정, 앞의 논문, 2021.5; 「고려후기 경주 任內의 개발과 편제」, 『역사와 세계』 59,

변으로 구성된 공간구조는 京·牧·都護府의 계수관 모두에서 공통된다.

서경·동경·남경의 3경 행정직제는 개경 아래 일반 領郡의 위에 있어 都護府나 牧 보다 상위에 두어졌다.<sup>15)</sup> 3경은 전 왕조 舊都의 정치적 명분을 활용하여 수도의 위기에 천도지로 부상한다. 古都 위에 설정되어 수도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춘 다경은 성립의 출발부터가 다른 계수관과는 구분을 요하는 제2 수위도시로서, 옛 왕조의 9州 5小京이나 군사적 요충지에 설정된 牧·都護府와는 그 위상이 처음부터 차이났다.

인적·물적·인지적 차원의 도시 首位性의 대소는 전체를 대비해야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수위성의 비교 지표가 될 대전제는 전체를 지향한 一統(三韓一統·大一統)과 자기인식의 토대인 海東天下이다. 일통이나 해동천하는 삼국통일전쟁이나 후삼국통합과정의 필요조건으로 재소환된 것이지만 통일·통합이라는 당면 시대과제 속에서 다시금 분출한 이념이다. 고려 당대의 一統은 태조의 訓要十條에서 구체화되었다. 건국 초창기에는 주민구성, 사회 신분구조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야 했다. 이에 다원적 요소를 통합하려 새로운 이념적 장치가 필요했다. 통합의 구심이 된 이데올로기는 바로 일통의식이자 고려 독자의 천하관인 썸이다.<sup>16)</sup>

원래 천하관은 천하가 一家에 등치되는데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늘 아래 온 세상이라 해석된다. 천하의 중심에 있는 천자의 위상은 奉先·正朔·朝貢으로 드러난다. 천자는 제후의 지위 고하와 친소관계에 따라 자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권차적으로 확대되는 공간을 구축하려 하였다. 이는 각 경계 지점에 포진한 세력편제에도 적용된다. 천자는 점차 자신의 세계

---

효원사학회, 2021.6; 「고려 김해의 邑基와 龍神 祭禮」, 『역사와경계』 119, 부산경남사학회, 2021.6.

15) 김철웅, 앞의 논문, 2021.

16) 채웅석, 앞의 논문, 2016; 박종기, 앞의 논문, 2013; 앞의 책, 52~54쪽.

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방경계의 지리적 인식을 갖추었다.

고려의 천하관은 12세기 전후하여 대내외적 확장성을 지니면서는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논리로 작용하였다. 국초 대외관계는 당 해체 후 송·거란을 주축으로 하는 대립관계 위에 고려·서하·오·월을 하부구조에 놓는 관계였다. 대륙의 송은 강자는 아니었다. 결과 송과 연결하는 각국은 外王內帝를 칭할 수 있었다. 대외정세의 판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 국내적으로는 건국초 후삼국 통합에 협조한 호족들을 제후로 간주하는 천자국 체제를 운영했다. 일통과 천하관은 국가안팎으로 통합질서 구축이 요구되던 때에 필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 그 이념적 성립은 태조대이거나 늦어도 현종 연간이다. 일통 ‘천하중심’이라는 관념은 고려 국가운영을 위한 제반 부분에서 두루 관철된다.<sup>17)</sup>

일통과 천하관은 국토의 영역적 통합에서도 적용되는데 다경제의 숫적 추이나 성립에서 찾아진다. 이를테면 다경은 고구려·신라의 계승처인 서경·동경이나 후백제 견훤에게 주어진 식읍처인 남경에 설정한다. 후삼국 통일 이전 고려 삼경은 수도 개경과 서경, 궁예시절의 東州(東京)을 칭한다. 성종 6년에도 동경은 경주를 칭하지는 않고, 왕이 체재한 서경 보다 동쪽인 개경을 뜻하였다.<sup>18)</sup> 동서남북 사방위가 어느 한 방향에 지정되지 않

- 
- 17) 김주미, 「日象文을 통해 본 고려시대의 역사 계승 의식」, 『백산학보』 86, 백산학회, 2010; 盧明鎬,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한국사연구회, 1999; 박인호, 「이승휴의 천하관과 영역인식」, 『朝鮮史研究』 24, 조선시대사학회, 2015; 이도학, 「韓國史에서의 天下觀과 皇帝體制」, 『전통문화논총』 1, 문화재청, 2003; 이석현,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2010; 추명엽, 「高麗時期 ‘海東’ 인식과 海東天下」, 『한국사연구』 129, 한국사연구회, 2005; 한정수, 「고려전기 異邦人·歸化人의 입국과 해동천하」, 『한국중세사연구』 50, 한국중세사학회, 2017; 「고려 문종대 ‘해동천하’ 인식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사상과 문화』 9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 18) 삼한일통과 각 지역 유민의식은 역사전개의 과정 속에서 군주의 지배이념과 장치의 필요에 따라 길항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호전적 영토확장의 이념이 필요할 때에는 유민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을, 정국안정과 통합이 요구될 당시에는 삼한 일통의식을 표

다가 성종 6년 직후부터 지역명과 방위명이 일치한 것 같다.

비슷한 시기 개경을 중심에 둔 천하관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는 궁궐운영에서도 간파된다. 현종 연간 개경에는 기존 정전역할을 하던 건덕전 외에도 새로이 회경전을 구축함으로써 국왕 居所인 궁궐 구역의 위상을 튼실히 하였다.<sup>19)</sup> 천하관이 가장 팽창하던 시기는 문종 전후이다. 이 무렵 고려의 다경제는 숫적으로 최다를 이룬데다 동경은 경주, 서경은 평양, 남경은 한양을 확실하게 칭하는 것으로 고정되었다. 다경에 부기된 동·서·남 방위의 기준점은 개경이다.

다경의 숫적 추이로만 봤을 때 제1기는 태조대부터 광종연간까지로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로 운영되었다. 2기는 성종·목종연간, 개경·서경의 양경에다 동경을 합친 삼경제였다. 다경제 운영의 1·2기 동안은 개경과 서경의 위상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서경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3기는 개경·서경·동경·남경의 4경제로 경영되는 현종·인종 정도이다. 무인집권기에 3경·4경 대신에 남경 주변을 좌소·우소로 비정한 삼소 순주론이 등장한다. 원명교체기에도 개경·남경의 양경제로 운영된다. 무인집권 직후부터 원간섭기에 이르기까지 고려 천하관이 크게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다경제의 숫적 전성기는 천하관이 팽창하던 중기 무렵이다.<sup>20)</sup>

천하질서를 사방의 방위관념과 결합하여 공간에다 한층 정교하게 표출되도록 한 것은 五服·九服圖이다. 5服과 9服의 ‘복’은 복종한다는 뜻이다. 5복은 甸服·侯服·羞服·要服·荒服, 9복은 侯服·綏服·男服·采服·衛服·蠻服·異服·鎮服·藩服으로 구성되어 있다. 5복의 要服, 9복의 蠻服까지가 왕화가

---

방하였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윤경진, 「고려초기 삼한일통의식과 고려 三京」, 『한국중세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2017; 「고려 숙종대 남경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역사』 105, 서울역사편찬원, 2020; 채웅석, 「고려 삼한일통의 다원성과 통합성」, 『한국중세사연구』 54, 한국중세사학회, 2018).

19) 정은정, 앞의 책, 2018. 제2장 개경의 경계확정과 경기제 확대 실시.

20) 정은정, 위의 책.

미치는 범위로 內服에 해당한다. 荒服(夷 鎮 藩服)은 미개지역으로 荒服의 바깥에 化外에 해당한다. 化外的 동쪽은 바다, 서쪽은 流沙이다. 5服圖와 9服圖 모두 중화와 이적의 공존을 꾀하는 중화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 사방천리에 천자의 직할지(甸服)를 배치한다.<sup>21)</sup>

『周禮』夏官 職方氏에서는 사방 10,000리의 땅 가운데 1,000리가 王畿에 해당한다. 9畿의 중심에는 왕이 거주하는 王城이 있으며 왕성 주위 사방 1천리의 땅을 王畿 邦畿 國畿라 하여 왕의 직할지로 설정하고 나머지 영역을 서열화하여 구분하는 논리로 삼았다. 왕을 중심으로 천하를 구분하되 직할지 사방으로 봉작의 순서에 따라 제후들의 분할 영토를 500리 단위로 설정한다. 9畿의 사방 바깥에 오랑캐 나라인 藩國을 설정해 놓았다. 『新定三禮圖』에서는 要服까지만 政教로 단속 가능한 內服이며 그 바깥 세계인 夷服 藩服까지 오랑캐 영역이라 하였다. 甸服에서 멀어질수록 왕화가 미치지 못한다.

京의 주변에서 이를 보익하는 경기는 五服圖·九服圖에서 甸服에 상응하며, 천자의 직할령으로 천하의 중앙에 배치되었다. 王畿는 예제적·신분적 질서를 영역 구분에 적용한 것인데 역대왕조에서는 이러한 등차적 질서론에 따라 王畿를 설정하고 우대함으로써 권위를 확보하였다.<sup>22)</sup>

五服·九服圖에서 제시한 등차적 공간배치의 관념이 연출된 곳은 수도인

21) 『尙書』 寓公編과 『周禮』 夏官編에서는 왕기 바깥 세계를 포괄하는 세계질서를 고안하였다. 『詩經』에서는 ‘邦畿 천리는 민이 사는 곳이다 하여 천리의 방기’가 보인다. 寓公 편에는 오복도와 같이 천하를 帝都의 땅이라 할 왕기 기주, 그 주변 사방을 전복 후복 수복 요복 황복 등 500리로 나누는 오복제로 구분하여 천자 중심의 영역 관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였다. 『禮記』 王制편은 왕기를 중심으로 서주 시기의 분봉제를 표시하였다. 『禮記』에서는 내제후와 외제후를 구분한데 이어 정전제의 원리 원칙을 거론하였다. 『荀子』 大略에서는 왕자는 반드시 천하의 중심에 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2) 이익주, 「한국고려시대 경·외 차별과 수도의 위상」, 『서울학연구』 52,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3; 장지연, 「조선 전기 개념어 분석을 통해 본 수도의 성격」, 『서울학연구』 52,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3.8; 「고려 말 조선 초 封建制 理想 속의 首都 인식과 그 위상-천하 질서 속의 봉건과 수도-」, 『서울학연구』 60,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5.8.

개경 외에는 다경 뿐이다. 고구려 평양성이던 서경은 태조 원년 평양도호부를 설치한 이래 인종 연간까지 서경을 중심에 둔 西京畿를 배치하였다. 후삼국기 백제의 도성이던 남경에도 畿內가 있었다.<sup>23)</sup> 건국기에 개경과 서경의 두 축을 지탱하던 원경기에서, 이후 경기남부의 개발이 진행되던 중기 이후부터 개경·서경·남경의 삼경지역을 두루 포괄하는 광역 대경기제를 시행하였다. 동경의 기내제는 휘철되어 촌락화하지만 개경·서경·남경, 이 세 곳의 경을 보익하는 畿內制는 유지되거나 늘어난다.<sup>24)</sup>

문종대 확장된 기내제 지역(대경기)에 사방위 방향의 관념이 투입된 것 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진 않으나, 같은 왕 31년 이정이 죽자 西畿山 기슭에서 화장했다던 기록이 있다. 제시한 西畿의 산은 서쪽 기내를 칭한 듯하다.<sup>25)</sup> 개경 남경 축 중심의 대경기 지역에는 방위명을 입힐 정도로 기내제의 확장적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 왕조 경주의 기내제는 태조대 이래 촌락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소멸한다. 다경의 기내가 휘철되거나 확장의 추이를 보이는 반면, 목·도호부 이하에서는 기내제 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기내제는 다경 만의 공간편제라 해도 무방할 듯싶다.

현종 이후 문종 연間は 개경·서경·남경의 삼경제가 정형을 구축하던 때이자 경기가 최고치로 확장된 시기이다. 개경·남경 방면의 기내지역이 늘어난데 비해 동경 주변에 포진하던 기내지역은 축소되거나 해체되고 있다. 장소와 숫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경제는 삼국 유민의식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통합하던 장치였다. 다경은 영역 내부의 기내제 실시에서도 보듯 관념상 수도 다음의 제2 수위 지역이었다.

23) 예종대 이미 거란 투화인이 南京 圻內(=畿內)에 산거하고 있었다(『高麗史』 권14, 睿宗 12년 8월 丁卯, 王至南京 契丹投化人 散居南京圻內者 奏契丹歌舞雜戲以迎駕 王駐蹕觀之).

24) 정은정, 「고려전기 경주권역 정비와 邑內外 분리」, 『한국사연구』 154, 한국사연구회, 2011; 「고려중기 경주의 邑基 이전과 景觀」, 『사학연구』 106, 한국사학회, 2012; 「고려전기 경기의 형성과 대경기제」,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2004; 「고려중기 경기지역의 공한지 개발」, 『지역과 역사』 16, 부경역사연구소, 2005.

25) 『高麗墓誌銘集成』 李珽.

### 3. 인적·물적 차원의 首位性

군주의 권위가 핵심적으로 미치는 ‘공간’에 대한 관념은 京을 에워싸는 畿內를 두어 등차적 질서를 투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 개경을 비껴난 바깥에 기내제가 관철되는 곳은 국초 일찌감치 기내가 휘철된 동경을 제외하고는 서경·남경 만이다. 다경이 다른 계수관 보다 높은 상징적 위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경을 포함한 목 도호부의 계수관은 4·5개 주·속현을 단위 영역으로 한다. 이때 수령이 상주하는 직할읍치는 관내 타 주속읍 단위 보다 관속인구를 위시한 인구나 물적 차원의 수위성이 높은 편이다.

계수관에 파견된 외관(수령)은 주현 외에 임내의 읍사에도 행정·명령·사법·부세수취·군사지휘 향리감찰의 제 권한을 지닌다. 중앙 → 계수관의 직할읍치 → 예하의 주읍, 속읍 → 촌락으로 하강하는 통치체제를 비롯한 常住 수령의 업무는 모든 계수관에 공통된다.

수령은 재임 기간 동안 관할지역을 통치하여 중앙 행정의 업무를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다.<sup>26)</sup> 중앙에서는 수령의 업무 수행 능력을 관리하고 평점을 책정하는 기준으로서 시행 세칙도 마련한다. 고려에는 외관 수령이 준수해야 할 업무규정으로 5사가 있었다. 성종 2년 12목을 설치할 때 수령의 업무와 관련한 초안이 마련되고, 3년 뒤 12州牧에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케 해주었다.<sup>27)</sup> 뒤이어 漢 刺史 6조항에 맞춰 수령의 업무 세칙이 정비되었다.<sup>28)</sup> 이 초안을 기초로 후일 『高麗史』 選舉志에서는 수령의 업무가 5가지로 정해졌다. 수령 5사는 田野闊·戶口增·賦役均·詞訟簡·盜賊息이다.<sup>29)</sup>

26) 『高麗史』 권84, 刑法1 職制 判外獄囚 西京則分臺 東西州鎮則各界兵馬使 關內西道則按察使 東南海則都部署 其餘各界首官 判官以上 無時監行推檢…; 刑法1 公式 官吏給暇, 忠穆王判 參外員 身病告暇者 令部審其虛實 給暇 外官身病者 亦令首官審之 方許上京調理.

27) 『高麗史』 권84, 刑法志 職制.

28) 『高麗史』 권95, 列傳8 諸臣 崔沖 德宗初 轉右散騎常侍同知中樞院事 奏 成宗時 內外諸司廳壁 皆書說苑六正六邪之文 漢刺史六條之令 今世代已遠 宜更書揭之 使在位者 知所飭勵 從之.

29) 고려말 공식적으로 표준화된 수령 5사는 고려 독자의 조항은 아니고 元代 수령 5사의

그런데 고려시대 문집 등에서 파악되는 수령의 일상 업무는 5事 보다는 범주가 넓다. 이규보는 桂陽都護府 全州牧 司錄兼掌書記로 재임시절에 부역·권농·치옥·기우제, 태수·안렴의 부임시 영송의식, 군대의 발병과 포호, 속군을 시찰하는 일도 맡았다. 동지·정단에 안부 편지를 작성하여 빈객을 접대하던 일도 매우 중히 여겼다.<sup>30)</sup> 수령 5사는 주읍 이상의 외방에 상주하는 모든 외관에게는 공통되는 일이다. 수관 직할읍치의 수령은 외관이 공통적으로 수행해야 할 직무 위에도 관할지역의 외관을 통어하는 역할도 떠맡았다.

『高麗史』 百官志 外官條에 수령의 품위는 계수관을 구성하는 대도호부·중도호부·목으로 순차가 매겨진다. 경·대도호부에는 3품 이상의 유수와 부사를, 중도호부에는 4품 이상의 부사, 방어진·주군에는 5품이상의 진사·지주군사, 진·현에는 7품이상의 진장·현령을 두었다. 현령·현위의 품위는 8·9품으로 초입사자가 직임하는 것이 통례이다.<sup>31)</sup> 속관의 숫자는 서경·동경·남경·도호·목의 순으로 매겨진다.<sup>32)</sup>

관아에 소재하는 공공기물은 동일 계수관 급 내에서도 다정에 우선하여 배치되거나 숫적으로 조금 더 분포하는 경향이 간파된다.

대부분 수령의 공·사적 업무가 행해지는 외관청 주변에는 향리조직인 읍

영향을 받았다. 『元史』 選舉志 凡選舉守令條에는 수령의 업무를 戶口增·田野闢·詞訟簡·盜賊息·賦役均, 五事編者 爲上選이라 제시한다. 여기서 논의된 수령 5사는 우왕대까지 수령의 업무 기준이었다. 창왕대 이르러 조준은 盜賊息을 제외하고 이를 대체하여 學校興 항목을 끼워넣었다.

- 30) 김창현, 「문집의 遊歷 기록을 통해 본 고려 후기 지역사회의 양상 - 이규보의 전주권역 遊歷 기록을 중심으로 -」, 『韓國史學報』 52, 고려사학회, 2013, 130~141쪽.
- 31) 『高麗史』 권77, 百官志 外職: 배재호, 「규장각 소장 읍지 선생안을 통해 본 여말선초 수령 임기변화의 실태」, 『한국중세사연구』 70, 한국중세사학회, 2022; 이진한, 「고려시대 수령의 경직 견대」,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03; 이강한, 「고려 후기 외관의 신설 승격 및 권위 제고」, 『한국사연구』 171, 한국사연구회, 2015; 정요근, 「고려 후기 조선전기 수령 중심 군현 편제의 전개와 연속성」, 『역사비평』 120, 역사문제연구소, 2017; 최은규, 「고려시대 감무의 운영과 그 특징-임명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18, 한국역사연구회, 2020; 「고려시대 현령과 현위의 임명과 운영의 변화」, 『역사와 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 32) 朴宗基, 「高麗時代 外官 屬官制 研究」, 『진단학보』 74, 진단학회, 1992, 65~73쪽.

사가 병존한다. 수령의 주요 행동반경인 치소 핵심구역에는 집무처인 동헌 영역이 있다. 이곳으로는 衙舍·客舍·州學·鄉校·獄舍·常平倉·肅拜禮 시설과 後園이 소재한다. 읍내(치소) 5리 안팎의 근교(사산금표)에는 향교나 능묘를 포함하여 영빈송객하는 맞이시설로서 五里亭이나 院館이 분포한다. 치소 바깥으로 촌락과 민거가 들어찬 경관이 외읍의 일반적 모습이다.<sup>33)</sup>

治獄이 이루어지던 감옥은 현종 9년 전후 향직제도 마련시 옥사 인원을 규정한 때에 대부분의 州에도 둔다.<sup>34)</sup> 수령의 업무 중 興學과 관련깊은 향교는 태조대에 서경에 설치된 이후로 성종 8년에는 각 州牧의 학생을 천거하는 제도가 성립된다. 이후 인종 5년 지방의 모든 州에 향교를 확실적으로 설치한다.<sup>35)</sup> 인종 이전 향교는 서경을 비롯한 주요 계수관 단위부터 소재한 것이라 여겨진다.

객사는 읍치소 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객사 건물은 政廳과 兩翼軒으로 구성된다. 정청 앞으로는 너른 마당이 있다. 영접이나 관아 공식의 연례행사는 여기에서 주로 치러진다. 안찰사나 중앙에서 파견된 사신이 내려오면 그들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양익헌을 내어주기도 한다.

이규보가 명종·고종연간 전주목 사록검장서기로 재임할 때에 방문한 객사는 전주목 관할하의 속읍 단위에 소재한 것들이다. 계양도호부 재임시 언급한 객사 역시 계양의 속현에 있었다. 객사는 중후기에 이르면 속읍까지 분포한 듯하나 처음은 계수관급에서부터 설치되기 시작한다.<sup>36)</sup>

다경에는 다른 계수관에는 확인되지 않는 毬庭 시설이 있다. 구정에서는 도교식 天神 제례인 醮禮가 거행되었다. 후일 조선 태조대에 예조에서 동경·서경의 구정과 초례를 혁파하고 개경에만 남겨두기를 청했다는 기록에

33) 정은정, 앞의 논문, 2022.

34) 『高麗史』 권75 選舉3 銓注 顯宗 9년.

35) 『高麗史』 권74 選舉2 學校.

36) 『東國李相國全集』 권10, 古律詩, 再入臨陂郡 古縣依然接水湄…客舍新除垂柳路…; 沃野縣客舍.

서<sup>37)</sup> 고려 때 東京·西京에 毬庭 시설이 소재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읍치 안팎 경계에 있던 五里亭은 도심에서 5리 정도 원격한다해서 칭해진 이름이나, 실은 군현의 현실적 사정에 따라 읍치 좀더 가깝거나 멀게 위치한다. 5리라는 거리 규정은 군현의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항목이었다.<sup>38)</sup> 읍치 공공재인 五里亭은 속읍에는 거의 없고, 주읍 단위에 한 개 씩 고르게 설치되었다. 다경 계수관의 경우 직할읍치 1곳에만도 사방 고르게 복수의 오리정이 분포한다. 그러다가 고려말에 이르러 관아의 오리정은 다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읍의 읍치에도 소재한다. 읍치 사방 5리 거리에 분포한 오리정이 다경에 조금 더 분포한 정황이나, 특히 일반 외읍에는 잘 쓰지 않던 迎春亭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나마 여타 계수관급과 다경 사이의 단층을 가늠할 수 있다.<sup>39)</sup>

迎春(立春)에 치러지는 절일의례로서 토우례가 있다. 입춘 토우례는 기곡제이자 寒氣를 驅逐하는 의미를 띤 의례이다. 唐代에는 兩京과 州縣의 문밖에서 토우례가 거행되다가 宋代에 三京의 각 성문에서 치러졌다.<sup>40)</sup> 고려의 경우도 입춘 토우례는 처음 三京에서 거행되다가 후기에는 大州와 府의 영춘정(영객정)이라 이름 붙인 곳에서는 예외없이 행해진 것 같다.<sup>41)</sup>

입춘·영춘정은 중국의 漢·唐 初에 설행하던 五郊迎氣 의례의 설행장소

37) 『東國李相國集』 권40, 釋道疎祭祝: 『太祖實錄』 권5, 太祖 3년 3월 1일.

38) 鄭杓根,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52쪽; 구산우,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기와 명문·기와의 조달, 공공건물로서 오리정과 관련하여-」, 『항도부산』 4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22, 251~259쪽.

39) 5리정은 관격에 따라 숫자가 차이나는데 대개 목·도호부 치소의 오리정은 1·2개 정도만 소재하며 속읍 단위에는 아예 없다. 거리 규정에 따른 '오리정'이라는 명칭 외에 迎春亭 立春亭이라는 별칭을 쓰기도 한다. 봄을 맞는다는 의미의 立春·迎春이 보통명사로 쓰인 '오리정'을 대신하여 부기된 곳은 처음 다경에서 부터이다. 거기에 봄맞이와 관련한 영춘정은 전·중기까지는 서경·동경에서만 확인되다가 점차 보편적으로 통용된 것 같다.

40) 『大唐開元禮』 권3, 序禮下 雜制, 凡立春前 兩京及諸州縣門外 并造土牛 耕人各隨方色; 『天聖令』 營繕令, 立春前 三京府及諸州縣門外 并造土牛耕人…

41) 『慵齋叢話』 附 立春土牛儀禮: 『東文選』 권65, 公主東亭記; 『耘谷詩史』 권5, 12月26日立春卽事. 『輿地圖書』 原州牧 古跡에 原州의 立春壇은 고을 동쪽 4리 永郎村에 있다.

와 연결되지 싶다. 五郊迎氣制는 五行의 움직임과 時令이 결합한 ‘四時의 기운 맞이의식’이다. 五郊迎氣制는 唐 顯慶禮·開元禮 단계 이전 首都와 陪都의 郊에서만 치러졌다. 한·당대의 五郊迎氣制는 후일 명당의례가 갖추어질 前史로서 함축적 의미를 띤다.<sup>42)</sup> 이를 추론해서 본다면 고려 다경에 분포한 오리정(영춘정 입춘정)은 예학에서 표방하는 오교영기제(→명당의례)의 개최 장소로서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된다.

## 4. 맞이의례의 층위

### 1) 관아 공식 의례

계수관 내 다경의 首位性을 헤아리려면 순서상 직할읍치에 상주하는 수령(외관)의 통상적 일상업무에서 파생되는 공통된 관아의례를 살핀 다음에 다경만의 특화된 의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수령의 공적 업무와 연계된 관아의례는 『高麗史』禮志 嘉禮, 『國朝五禮儀』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정리되었다. 『世宗實錄』五禮 嘉禮에서는 외관이 객사의 정청에서 전패를 모시고 행하는 의식의 내용이 더욱 분화한다.

통상적 관아의례로는 외관이 正朝·冬至·誕日 및 朔望日에 遙賀하는 의식(①), 왕이 내린 향·교서를 받는 의식(②), 왕에게 올리는 箋文을 보내는 의식(③), 외관이 관찰사를 맞이하는 의식이 있다(④). 관아의례 가운데 ①-③번까지는 외관청사에서 치러지며 나머지 ④의 경우는 읍치(소) 바깥에서 관아 핵심구역 안으로 진입하면서 행례된다.

42) 『天地瑞祥志』 권20, 郊, 迎氣; 姜波, 「圜丘与明堂: 唐帝國的礼制建筑遗址」, 『중국고중세사연구』 29, 중국고중세사학회, 2013; 目黒杏子, 「後漢年始儀禮の構成に關する試論」, 『중국고중세사연구』 39, 중국고중세사학회, 2016.

수령의 일상 생활영역인 읍치(소)에서 치러지는 공식적·주기적 관아의례는 주로 외관청사에서 치러졌다. 좁은 외관청 내 객사나 동헌의 정청에서 신구 수령의 교체나 퇴임시의 의식이 거행된다. 객사에서는 초하루·보름에 생존해 있는 국왕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망궐례(요사의)가 행해진다. 숙배례와 망궐례는 衙日이라는 주기적 시간관념과 결합하여 나타난 의례이다. 6衙日은 지방관아의 업무설계와 계획수립의 기준이었다. 아일·절일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될 수 있던 데는 중기 무렵 제반 부분에서 국왕이 전제적 통수권을 행사하는 권위의 확보 위에 시령·월령적 시간 지배질서가 확산되는 과정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하다.<sup>43)</sup>

읍치 밖 四山禁標에서는 맹수의 포획도 이루어진다. 호랑이의 포획은 군사활동의 하나이다. 捕虎를 한 사람에게는 捉虎侍御史 관직이 부여되었다. 포호활동은 위민의식의 일환으로 고려 때 관아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전주부사록점장서기 박원규는 경내 호랑이가 출몰하자 말을 타고 가서 화살로 맞춰 죽였다.<sup>44)</sup> 왕충은 보성군의 수령이었는데 경내 호랑이떼가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해치자 포획하였다.<sup>45)</sup> 이규보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산의 호랑이를 포획하기도 하였다.<sup>46)</sup> 수령의 야수 포획은 당시에 큰 치적으로 인정되었다.<sup>47)</sup> 교외 사산금표에서는 얼음의 채집과 저장 때 올리는 사한제, 馬步 馬社 祖道制<sup>48)</sup> 역시 행해졌다.

43) 정은정, 「고려 朝儀 구성과 정비」, 『역사문화연구』 86,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1.11; 「10·13세기 初 고려 朝儀 운영」, 『사학연구』 146, 한국사학회, 2022.6.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3, 全羅道 全州府.

45) 『高麗墓誌銘集成』 王忠.

46) 『東國李相國前集』 권9, 自貽雜言 八首, …紅旗如火馬如虬 獵得南山白額侯….

47) 『東國李相國前集』 권37, 全州祭城隍致語文; 『高麗史』 권118, 列傳31 趙浚;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 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이병희, 「고려시기 不殺生과 不食肉」, 『한국사학보』 85, 고려사학회, 2021; 「고려시기 사냥의 방법과 尙武性」, 『동국사학』 72,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1; 「고려시기 사냥의 성행과 대책」, 『한국중세사연구』 67, 한국중세사학회, 2021.

48) 『東國李相國前集』 권17, 送宋左丞恂節制塞北(席上走筆).

읍치를 벗어난 遠境의 도계로부터 치소 핵심구역으로 진입하면서 거행되는 관아의례는 맞이의식이 주를 이룬다.

『高麗史』禮志에는 수령이 5리정과 객사에서 京外官을 맞을 때 행해진 의식으로 사신영접례·등청의·신급제진사영친의가 수록되어 있다. 외관이 교서와 관찰사를 맞을 때는 의장을 갖추고 관문에서 5리 떨어진 遠亭에까지 나아갔다. 상주하는 수령이 동헌을 나와 읍치 5리 교외까지 나가서 맞이할 때 의례장소는 五里亭이다.<sup>49)</sup>

경관과 외관, 외관 끼리의 관료질서를 단속하는 일은 군주 주도의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히 여겨졌다. 이 연유로 『高麗史』刑法志에는 京·外官 쌍방의 공무 처리에 지켜야 할 公式令이 수록되어 있다. 공식령의 하부 편목에는 相避·官吏給暇·避馬式·公牒相通式이 있다.

公牒相通式은 문서의 수발 관계를 명시한 시행령으로 京官·外官, 奉命使臣과 常住하는 외관 간의 직제의 위계를 명시하고 있다. 공첩상통식은 성종대 골격을 갖추고 현종 9년 지방제도의 개편 당시에 다듬어져 문종 15년 전후 완성되었다. 공첩상통식의 정비와 비슷한 시기인 성종 6년 考官格式, 현종 2년 湖名式 封彌法, 暇寧令, 성종 9년 五服相避式 같이 관인사회를 통제하는 격식도 함께 정비되었다. 현종 16년에는 御史臺格·御史臺新格이 정비되었다. 儀制格의 일부로 남은 御史臺新格이나 服制式 중 상복 관련한 조문은 儀制式일 것으로 파악된다.<sup>50)</sup>

공식령의 공첩상통식·피마식은 형식적으로는 唐令 儀制令의 분류체계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거의 유사하다. 고려의 避馬式은 현종대 禮儀司에서 제의를 한 이후 덕종 2년 12월에 恒式으로 정해졌다. 이어 선종 10년에 避馬式의 편목 일부가 조정되었다.<sup>51)</sup> 성종 전후 각종 율령격식의

49) 구산우, 앞의 논문, 2021; 정은정, 앞의 논문, 2022.6.

50) 위은숙, 「고려시대의 格과 式」,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51) 『高麗史』 권84, 刑法志 公式令 避馬式.

수용과 변용을 계기로 관인사회의 기강단속을 위한 초석이 탄탄히 다져진 문종 이후에야 고려 법제의 조문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다.

공식령의 시행세칙인 공첩상통식·피마식은 대부분 『高麗史』禮志 朝野通行儀禮에 수록되어 있다. 相見禮·下馬禮는 관련한 유사 조항이 산견은 되지만 『高麗史』禮志나 刑法志에는 따로 편목은 없다. 그러다가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단계에 오면 相會議·下馬禮 항목이 분리 독립하였다.

고려가 참작했을 송대의 예제와 의제령에는 관인상하간 상견례와 피마식 하마례가 비교적 상세히 분화되어 있다. 당 의제령이 京官 중심의 상견례 위주였다면, 송 의제령은 지방사회의 관인 사이의 기강을 단속하는데 다수의 조항을 할애한다.<sup>52)</sup> 송대 지방사회에서 유통경제의 진전과 관아 자체의 둔전 경영을 비롯한 전운사 직제의 강화를 염두한 까닭인지 당대에는 없던 새로이 등장한 직제간의 상견례도 수록되었다. 고려 의제령이 대거 삽입된 『高麗史』禮志 말미에도 <별첨 표 1>에서 보듯 朝野通行儀禮라는 편목으로 京官 外官 사이 뿐더러, 송에서처럼 외관 상호간의 相見禮·相會議 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적혀있다.

이상 계수관 공통의 관아 공식의례는 첫째, 외관청사의 객사나 관아정청에서 치러진 망궐례·군대사열, 둘째 읍치소 5리안팎에서 행례된 사한제 마보·마조 같은 잡사 항목의 제례, 셋째 읍외곽 도계에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사신영접례·영친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국가차원에서 강제하는 관아 공통 의식에 해당한다. 지역 고유의 성황제나 기우제도 읍치 영역에서 열렸지만 지역의 군·관·민의 협치 아래 독자적으로 치러지는 관아의례이다. 국가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관아 공식 의례는 상주

52) <표> 唐·宋의 상견례

大唐開元禮	朝集使於尙書省禮見	宋史	皇太子與百官師保相見儀
	任官初上相見		百官相見儀制
	京兆河南牧初上		群僚上馬之制
	萬年長安河南洛陽於初上		群僚呵引之制

하는 외관의 일반적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무방할 듯싶다. 이들 관아 공식의례는 계수관을 구성하는 경·목·도호후에 공통되는 의례였다.

## 2) 국왕의 친행 의식

주속현제와 계수관 체제의 틀 안에 포함된 다경이라, 기본적으로는 계수관 공통으로 행례되는 관아 공식의례가 배설된다. 그 위에도 京과 닮은 제 2 수위도시로서의 多京에서만 거행되는 것으로는 친행하는 국왕을 지역민이 맞이하는 의식을 꼽을 수 있다. 다경에 국왕이 거동하는 것인 만큼 국왕의 행차에 수반되는 의식은 넓은 의미에서 親祀(親幸)에 포함된다.

국왕의 외방 순방이 주기적이면서도 정례화된 시기는 성종대 전후해서이다. 이 시기 국왕은 서경·동경·남경에 행차하여 省邦의 실천을 표방하고, 덕화로서 외방을 통치하고자 하였다. 고려 국왕의 행행은 거의가 다경에만 집중된다.

행행의 방식은 순행·온행·능행·전렵이 있다. 田獵(사냥)은 講武라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치러졌다.<sup>53)</sup> 軍禮로서 講武儀는 <별첨 표 2>에서 보듯 고려시대에는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강무의례가 『高麗史』의 軍禮에 수록되지 않았다하여 국왕의례로서 강무 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무는 사냥과 군사훈련이 결합되기도 하고, 사냥 단독으로 치러지기도 한다. 잠

---

53) 講武를 軍禮로 수립하자는 논의는 후일 정도전이 군제사 정비의 일환으로 제기하였다. 일련의 논의 이후 조선 태종·세종대 강무의례가 정착된다. 국왕의례의 일환인 강무는 사냥 열무 군대사열의류 유형화된다. 조선 중기에 와서야 강무의식 대신에 열무라 하여 단순한 군사사열이나 군대동원 정도의 의미로 바뀌었다. 고려·조선시대 군례에 관련한 연구는 다음이 참고된다(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 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윤혜민, 「조선시대 軍禮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00, 조선시대사학회, 2022;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 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24, 한국역사민속학회, 2007; 한정수, 「고려시대 견장출정의(遣將出征儀) 및 사환의(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군사』 110, 한국군사학회, 2019).

시 지적했듯 관아차원에서 수령 주도로 치러진 사냥에는 국왕이 직접 행차하지 않는다. 국왕의 사냥터는 거의 서해도(서경)·남경일대에 국한되었다. 국왕이 직접 주도하는 사냥은 영토를 확인하는 순수의 절차이자, 국가의례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薦新物의 수확, 군사훈련의 목적도 있다.

국왕이 외방의 다경으로 행행(순행·온행·전렵)할 당시에 도성은 비워져야 했다. 순주처로 옮겨 2·3개월 이상 行在所에 머무는 동안, 비워져 있는 수도의 경계 대책과 시종신료를 위시한 호위행렬의 절차가 갖추어져야 한다. 개경 궁궐에 국왕이 부재한 사이에 유수부나 측근을 두어 임시로 정무를 보게 하거나, 감문·수문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국왕이 순행차 궁을 비우는 사이의 환란은 언제나 항존하는 것이었다. 행행을 해야 하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居所의 이동에 정치적·이념적 명분을 입혀야 했다. 결국 국왕은 행행의 명분을 당시에 유행하던 適所의 四時循環論에서 모색하였다. 사시순환론의 '시간'은 공간관념인 '명당'과 결합하였다.

원래 명당은 풍수상 길지라는 도참적 이해<sup>54)</sup>와 유학에서 얘기하는 布政之堂·正殿의 개념이 착종되어 있다. 고려에서 명당 용어의 대부분은 통시대적으로 쓰이는데다 도참의 吉地라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 그러한 가운데 짧은 시기 예종·인종 연간의 예학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學堂·璧雍의 관념과 결합하여 명당용어가 등장한다.

예학에서 표방한 명당 관념은 『大戴禮記』 『禮記』 『周禮』 『孟子』의 예전에서 다양한 의미 변용을 거친다. 禮記에서는 명당을 제후가 주재하는 조회장소라 한다. 周禮에서 명당은 政教를 밝히는 당이라 하여 제후신분의

54) 고려시대 풍수적 명당론과 정치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김기덕, 『한국중세사 회에 있어서 풍수 도참사상의 전개과정-고려초기부터 조선초기까지 천도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2006; 김창현, 「고려시대 국왕순어와 도읍경영」, 『한국중세사연구』 21, 한국중세사학회, 2006; 박종덕, 「고려시대 풍수지리사상의 이해방향」, 『역사와 경계』 105, 부산경남사학회, 2017; 장지연, 『고려·조선 국도 풍수론과 정치이념』, 신구문화사, 2015).

고저를 관리하는 곳이다.孟子에서는 왕의 당을 명당이라 하고 淮南子는 제사지내는 장소를 뜻한다.<sup>55)</sup> 명당은 맹자 단계에 이르러 구체화하여 문왕의 布政施仁 같이 왕정을 펼치는 장소 자체를 규정하였다. 이렇듯 예학의 명당은 布政之堂(군신간 조회 장소) 외에 정전 건축물, 각 사계절의 시작 시점을 알려 布政을 하는 讀時令儀(聽朔儀禮)가 행해진 곳이라는 여러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sup>56)</sup>

고려에서 조회장소의 대표적인 정전은 회경전이다. 이 전각에 기념물로서 13층 금탑을 건립하거나,<sup>57)</sup> 無逸篇을 써서 장엄한 여러 행위도 이루어졌다.<sup>58)</sup> 마치 명당 건축물에 기념적인 상징성을 덧입혀 군주의 권위를 앙양하려 시도한 당 측천무후와 유사한 행위는 제1의 정전인 회경전에서도 관철되었다.

예학적 의미의 명당은 앞 시기에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다가 이후 예종대에 이르러 송에 사은사를 보내면서 태학에 고려 학생들을 둘 것을 제안하면서 典禮의 부흥을 논할 당시 璧雍·明堂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sup>59)</sup> 다만 이때의 벽옹·명당은 고려의 그것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 인종대에 당의 청삭의례와 같은 독시령의가 행해진 것으로 봐선<sup>60)</sup> 예학적 명당론은 이 시점 전후하여 수립된 듯하다. 의종 연간에는 대궐의 명당을 祖宗 布政之

55) 『大戴禮記』 明堂; 『禮記』 明堂位; 『周禮考工記』 明堂; 『孟子集註』 梁惠王章句 下, 明堂.  
 56) 예학적 명당위·명당의례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바란다(김일권, 「당송대의 명당의례 변천과 그 천문우주론적 운용」, 『종교와 문화』 6,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0; 홍승현, 「前漢初 國家儀禮의 제정과 성격 -封禪·明堂·郡國廟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08, 동양사학회, 2009; 이성구, 「漢武帝時期的 皇帝儀禮 -太一祀·明堂·封禪의 二重性에 대한 검토-」, 『동양사학연구』 80, 동양사학회, 2002; 김현자, 「고대중국의 신성 왕권, 그 신화와 의례 및 상징물들」, 『역사민속학』 2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정은정, 앞의 논문, 2022, 6; 目黒杏子, 앞의 논문, 2016; 姜波, 앞의 논문, 2013; 소현숙, 「여제(女帝)와 미술: 당 무측천(武則天)시대 낙양성의 정치적 기념비」, 『온지논총』 68, 온지학회, 2021).  
 57) 『高麗史』 권10, 宣宗 6년 10월 戊午, 眞新鑄十三層黃金塔于會慶殿 設慶讚會.  
 58) 『高麗史』 권12, 肅宗 8년 3월 己丑 命直史館洪灌 書無逸篇于會慶殿屏風.  
 59) 『高麗史』 권14, 睿宗 10년 7월; 睿宗 13년 8월.  
 60) 『高麗史』 권16, 仁宗 9년 5월 戊戌 制 每四孟月初 視朝 命官讀時令.

所라 명확히 지적하기에 이른다.<sup>61)</sup>

본래 중국 한당대에 정비된 명당을 제사하는 ‘명당의례’는 황제의 봉선·순수의례와 결합하여 거행된다. 명당의는 하늘에 대한 제사체계로서 제천의례의 일종이다. 천문과 인문의 교섭과정을 드러내는 명당제도는 천인감응적 천문사상이 반영된 의례의 하나이다.<sup>62)</sup>

명당제외와 짝을 이루는 제천의례가 郊祀제도이다. 교사제도는 황제의 제천의례로서 漢唐代에 체계가 잡힌다. 唐代的 郊祀제도는 圜丘 方澤 南郊 北郊 제의를 주축으로 여기에다 孟夏雩祀儀와 季秋 明堂儀가 새로이 국가 사전제도로 포함되었다. 겨울철 원구제천, 북교 제지, 봄철 남교제천, 여름철 우사 제천 방구제지, 가을철 명당제천은 매우 중히 여겨졌다.<sup>63)</sup> 성격은 각기 다르지만 대사급 제천의례가 모두 사계절에 편제되는 형식으로 정립된 셈이다.<sup>64)</sup> 祀典 체계에서 郊祀 제도와 明堂 제의가 체계를 갖춘 시기는 당대이다. 당의 교사제도는 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明堂제도는 수도를 이탈하여 陪都에서도 치러졌다.

고려에서는 「大唐開元禮」와 같은 유교식 명당의례가 禮志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신에 多京에 행차할 명분으로 明堂 巡駐論이 차용된 것 같다. (명당) 순주론은 사시순환의 시간론에다 明堂이라는 공간 이해가 상호 절충된

61) 『高麗史』 권55, 五行3 土 陰霧四塞, 毅宗 18년 11월 癸卯. 大闕明堂者 祖宗布政之所.

62) 예학의 明堂은 선진시기 유가사상에서 왕도정치의 이상을 담은 우주론적 제도이다. 隋 이전에 가을철 의례로는 五郊迎氣儀가 있었지만 大祀級 제천의례가 아닌 四時 의례의 낮은 위치에 불과하였다. 五郊迎氣 의례를 대체하여 季秋明堂 大饗으로 정립되는데, 이는 국가사전체계에서 제천의례로 등극되었음을 뜻한다. 당대에는 계절별로 하나씩의 제천의례가 독립된다. 동짓달 원구제천, 춘정월 남교제천, 여름철 대우제천, 가을철 명당제천이 그러하다.

63) 唐 고조 武德令에 孟夏의 달(음 4월)에 昊天上帝를 원구에서 雩祀하며 경제를 배사하고, 季秋(음9) 明堂에서 오방상제를 제사하고 원제를 배사한다. 당(무덕령)에서 교사제도의 기본골격이 마련되었다(姜波, 「圜丘与明堂: 唐帝國的礼制建筑遗址」, 『중국고증세사연구』 29, 중국고증세사학회, 2013; 日黑杏子, 「後漢年始儀禮の構成に關する試論」, 『중국고증세사연구』 39, 중국고증세사학회, 2016).

64) 『舊唐書』 禮儀志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821쪽.

것이다. 순주는 국왕의 영토 통치방식이자 사방천하를 관할하는 천자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省邦 행위이다.<sup>65)</sup> (명당) 순주론을 수단삼아 국왕은 시간·공간을 주재하는 최상위 권력자라는 인식을 臣民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四仲月の 순주는 『禮記』 王制에 천자는 5년에 한번 2월에 동쪽, 5·8·11월에 남·서·북쪽에 머무는 것으로 명기한다.<sup>66)</sup> 고려에서 순주의 시기와 장소는 태조의 훈요십조·삼각산명당기·도선비기<sup>67)</sup>·해동비록에 명기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 제시된 바의 순주장소나 시기가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sup>68)</sup> 거의가 고려에서 사용한 명당 개념은 천문의 별자리 이름이거나<sup>69)</sup>, 대궐을 뜻하는 제한된 의미로 쓰였다.<sup>70)</sup> 그러다가 궐내를 벗어나 이어·순주같이 국왕 이동처가 외방으로 전개될때, 시간의 주기와 남순·서순·동순의 장소가 결합한다. 이는 명당 관념이 처음 궐내를 칭하다가 차츰 외방(다경)의 순행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된 대궐을 떠나 길지를 모색하던 명당위관념은 문종대 장원정을 명당으로 지목하면서 태동한 듯하다.<sup>71)</sup> 관념적이거나 명당위로 지정된 곳은 다경이었다.

그런데 예종·인종대 행행지역은 서경과 남경 중심이다. 태조 훈요십조에서부터 水德인 서경을 중히 여기라 했다.<sup>72)</sup> 水德의 시기는 10월이라 적

65) 『高麗史』 권3, 成宗 5년 3월 9일 乙丑: 7년 8월.

66) 『禮記』 권14, 明堂, 昔者周公朝諸侯於明堂之位 天子負斧依南鄉而立 周公踐天子之位以治天下 六年 諸侯於明堂 制禮作樂 頒度量 而天下大服 七年 致政於成王成王.

67) 『高麗史』 권122, 列傳35, 方技 金謂碑, … 道誥記云 高麗之地 有三京 松嶽爲中京 木覓壤爲南京 平壤爲西京 十一十二正二月 住中京 三四五六月 住南京 七八九十月 住西京 則三十六國朝天 又云 國後百六十餘年 都木覓壤 臣謂今時 正是巡駐新京之期.

68) 김철웅, 앞의 논문, 2013; 신안식, 「고려시대의 삼경과 국도」, 『한국중세사연구』 39, 한국중세사학회, 2014; 홍영의, 「고려시대 남경 경영의 배경과 공간영역」, 『한국중세사연구』 68, 한국중세사학회, 2022.

69) 『高麗史』 권21, 熙宗 4년 2월; 권47, 天文1 月五星侵犯及星變, 顯宗 7년 9월 壬子: 권48, 天文2 明宗 6년 2월; 권101, 列傳14 諸臣 權敬中.

70) 『高麗史』 권129, 列傳42 叛逆 崔忠獻 昔聖祖一三韓 卜神京於松岳闕 御明堂位…; 권16, 仁宗 7년 3월 丙寅 至自西京赦…海東先賢 有言 創宮闕於大花勢 以延基業 今旣相地 創造新宮 順時巡遊 思有恩澤 遍及中外….

71) 『高麗史』 권56, 地理1 開城府, 貞州 長源亭 松岳明堂記云 西江邊有君子御馬明堂之也.

어도 현종대까지는 서경 순행의 주기는 이 달에 맞춰졌다. 숙종대 서순은 7·8월로 火德의 기운이 강한 달에 행해졌다. 예종·인종대의 서순은 그보다 훨씬 빨라 木德의 기운이 강한 봄의 2·3월에 이루어졌다.

남순은 문종·숙종대 남경 개발과 경영을 계기로 차츰 진전이 있었다. 남순 주기도 처음 문종·숙종대는 2·5·7·8·10월로 불규칙하다가 숙종대 2·3월에서 예종·인종대에는 10월 주기로 옮겨간다. 앞서 서순과 남순의 주기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물론 水德의 기운이 왕성한 서경과 木德의 남경 행행의 주기가 뒤틀린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관련하여 음양오행론 가운데 상생설을 따른다면 서경 순행은 水德의 기운인 10월에 행하는 것이 옳지만, 예종·인종대 2·3월 西巡은 기존의 시간 질서를 역행하는 형국이었다. 이는 상생설 보다는 상극설을 수용한 것으로<sup>73)</sup> 당시 예종·인종대의 변법적 개혁론에 힘을 싣고 국왕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한 국정운영과도 맞물린다. 앞 시대와 절연하고 새로운 시대를 개창하려면 전 국왕을 계승하기 보다는 단절이 주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왕 주도로 정국을 운영하려는 노력은 첫째, 서순·남순 주기의 탄력적 변용(상생·상극), 둘째, 왕의 이궁 행차나 巡御에 정당성을 제공할 목적에서 明堂 明堂位 관념의 차용에서도 모색된 듯하다.

관념상 명당의 터로서 서경·동경·남경의 다정은 경의 기능을 분산 안배하고 천하질서 확장을 모색한 차원에서 경영되었다. 유교적 명당·명당위 제사는 수도의 교외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교외에서 치러야만 하는 郊祀제도에 비한다면 명당제사는 장소의 제약이 덜하여 聖所로서 明堂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유학적 명당위·명당제사가 지닌 이같은 속성상 四時 순환의 주기에 따라 거소를 옮겨가는 군주의 이동, 바로 순주(순행)에 정치적·이

72) 『高麗史』 권2, 太祖 26년 4월.

73) 박종덕, 「고려 인종대 서경천도론과 풍수지리 사상」, 『역사와 세계』 54, 효원사학회, 2018.

념적 명분을 제공하는 핵심논리가 되어 주었다.

수도 교외에서 거행된 天地祭祀 보다는 격이 떨어지지만, 국왕의 明堂儀나 田獵은 다른 계수관에는 찾을 수 없던 친행 의식이다. 이는 동급 계수관 내에서도 다경이 지닌 독자적 위상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 5. 맺음말

고려 다원사회와 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은 一統 의식이다. 일통은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삼한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삼한일통의식과 천하를 통일한 천자가 등극하여 새로운 통치를 시작한다는 대일통의식이 또하나이다. 혼요십조에 다원사회와 포용의 이념이 집약되어 있다. 다원성·다중성은 각 개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병렬하는 상태를, 다층위성은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신분 위계질서가 반영된 계서적 질서를 칭한다.

국초 전국의 효율적 통치를 위해 착실히 정비한 계수관제(광역 중간운영 단위)와 다경제는 중기 때 가장 정형을 구축한다. 4경, 12목, 5도호부의 성립에는 역내 군소단위의 재지적 기반을 바탕으로 수위성을 지닌 이들 지역을 통치의 거점으로 삼아서, 중앙과 지방의 통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현종 이후 문종 연간은 개경 서경 남경의 삼경제가 정형을 구축하던 때이자 경기가 최고치로 확장된 시기이다. 개경·남경 방면의 기내지역이 늘어난데 비해 동경 주변에 포진하던 기내지역은 축소되거나 해체한다. 장소와 숫자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경제는 삼국 유민의식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통합하던 장치였다. 경·목·도호부와 함께 계수관을 구성하는 다경은 영역 내부의 기내제 실시에서도 보듯 관념상 제2의 수위 지역이었다.

다경은 경관과 물리적 시설 차원에서 목·도호부와 구분되었다. 목·도호

부 다경(서경·동경·남경)으로 구성된 계수관은 위로는 안찰사의 통제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속관과 향리의 보좌를 받아 지방사회의 각종 행재정을 집행하였다. 이렇듯 다경은 상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경·목·도호부로 구성된 동급 계수관 내부의 위계 뿐더러, 다경 내부의 직할 읍치와 예하 주읍 단위에서도 인적·물적 수위의 편차가 있다. 이를테면 다경 내부에서는 직할읍치의 과밀과 집약도가 가장 높다. 다경도 2·3단계의 계층화된 지방 행정단계를 이용하면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게 운영하였다.

계수관 공통의 관아 공식의례는 외관청사의 객사나 관아정청에서 치러진 망궐례 군대사열, 읍치소 5리안팎에서 행례된 사한제 마보 마조 같은 잡사 항목의 제례, 읍외곽 도계에서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사신영접례 영친의가 있다. 이들 모두는 국가차원에서 강제하는 관아 공통 의식에 해당한다. 지역 고유의 성황제나 기우제도 읍치 영역에서 열렸지만 지역의 군 관 민의 협치 아래 독자적으로 치러지는 관아의례이다. 국가차원에서 표준화시킨 관아 공식의례는 상주하는 외관의 일반적 업무에 기인한다.

주속현 단위로 구성되는 계수관은 동일한 공간구조를 띤다. 옛 고도의 터전 위에 설정된 다경인 만큼 동급의 목·도호부와는 달리 기내제가 관철되었다. 거기에 중앙본사의 기구를 이식한 분사조직·구정을 위시하여 외읍의 공공시설인 객사·오리정·자복사도 다수 분포하였다.

관념상 명당의 터로서 설정된 서경·동경·남경의 다경제는 경의 기능을 분산 안배하고 천하질서 확장을 모색한 차원에서 경영되었다. 예전에 의하면 천하질서가 미치는 곳에서는 명당 교사제의를 지낸다. 명당제사는 교외에서 치러야만 하는 교사제도에 비하면 장소의 제약이 덜하여 聖所로서 명당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명당위 명당제사가 지닌 이같은 속성상 사시순환의 주기에 따라 거소를 옮겨가는 군주의 이동, 바로 순주(행행)에 정치적 이념적 명분이 되어 주었다. 다경 경영에 핵심적 논리가 되던 명당 명당위 관념은 목·도호부·도독

부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왕이 친행하는 명당의례나 사냥행차는 서해도나 경기 남부 같이 다경이 위치한 권역에서만 거행되었다.

종전까지 대부분의 고려 계수관제 연구가 주읍 이상의 경·목·도호부를 동렬에 놓고, 성립과 운영·구조·역할에 초점을 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계수관을 구성하는 경·목·도호부의 위계나 구성 요소간의 차이점을 해명하고자 기획되었다. 공적 구심력의 강도에 따라 다경을 제2 수위도시라 규정짓고, 인적 물적 의례 측면에서 계수관의 층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다소 부족하나마 본 글이 동급 계수관 내 首位性이 높은 다경의 위상을 제고한 정도로 이해받길 바란다.

<별첨 표 1> 朝野通行禮儀<sup>74)</sup>

朝野通行禮儀	기물 절차	무대/ 관계	성립 시기
*兩班員吏私禮		경, 경관과 외관	절요 권3, 목종16'4
*定文武官寮路上相遇禮		경, 경관과 외관	절요 권2, 목종12'12
*定大小官吏與臺官 路上相遇禮		경, 관리 대관	절요 권6, 선종10'6월
*朝士見三品以上官		경, 조사 삼품이상	절요 권18, 원종 1'9월
宰樞謁諸王儀		경, 재추 제왕	인종 2'윤2월
宰樞儀		경, 재추	
兩府宰樞合坐儀		경 양부 재추	
六官諸曹官相謁儀		육관 제조	예종 16년 3월
諸都監各色官相會儀		도감각색 상회	인종 19년 4월
參上參外人吏掌固調宰樞及人吏掌固謁參上參外儀		경, 참상 참외원리	숙종 2년 5월

74) (\*) 표시는 『高麗史』禮志 嘉禮의 朝野通行儀禮에 수록된 편목 외에도 여타 『高麗史』 『高麗史節要』에 관인간 상견례로 추정되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의 상단은 수도에서 경관과 외관끼리 노상에서 만났을 때의 피마례 상견례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된다. -의 하단은 외방에서 상주의관이 별함 봉명사신을 맞이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朝野通行禮儀	기물 절차	무대/ 관계	성립 시기
*凡內外衙門員以上坐床治事		경, 내외아문원리	숙종 2년 5월 판
*定內外員吏拜禮		경, 내외아문	절요 권2 숙종2년
*各司胥吏 着白方笠		경 외, 서리	신우원년12월정해
文武員將人吏起居儀	문무원장교\아전	경, 문무원 인리	인종 22년 9월
監獄日臺省內侍坐起儀		경, 대성 내시	예종 16년 8월
按察使別衙及外官迎行幸	왕 행차 경내 진입- 안찰사 별함 참장- 증금지유-주달	외방, 안찰사 외관	
外官迎本國詔書儀		외방, 조서 맞이	
外官問聖儀		외방	
新及第進士榮親儀	신급제자 卅 진입→ 주관 장교 약사 파견→ 5리정→정청 참장→ 자신의 집→ 관사 남	외방	
外官出官儀		외관-아전 간	
三品仕臣按察使相會儀		외방, 삼품관 안찰사	
按廉諸別衙相會儀		외방, 안렴 별함	
兵馬使及軍官拜坐儀		외방, 병마사 군관	
北界營主副使及幕下員相會儀		외방, 북계	
兩界兵馬使廳行禮儀		외방, 양계병마	
外方城上錄事謁宰臣及外官迎宰臣儀		외방, 북계 재추	
諸道計點使中護評理尹使相會儀		외방 계점사 증호	
平壤府尹迎觀察使儀		외방 평양부윤	
牧都護知州員同坐儀		목 도호부사	
外官遙謝改衙儀		외방, 요사의	
西京官僚加職遙謝儀		외방, 서경 요사의	
防禦員將謁按廉及參上官儀		외방 방어원 안렴	
兩界三京三都護八牧每堂元正冬至及至元節		외방 삼경 이하	

〈별첨 표 2〉 軍禮

주례	大師禮 大均之禮 大田之禮 大役之禮 大封之禮(春官宗伯 大宗伯)蒐田 苗田 彌田 狩田(夏官司馬 大司馬)
후한서	狗劉 臘 大讎 遣衛士
진서	閱兵 遣將出征
隋書	親征巡狩 命將出征 春秋蒐彌 讎
新唐書	皇帝親征(遣將出征) 講武 皇帝狩田之禮 射 合朔伐鼓 大讎之禮
大唐開元禮	皇帝親征類于上帝 皇帝親征禪于大社 皇帝親征告於太廟 皇帝親征禱于所征之地 親幸及巡狩郊祀有司載于國門 親征及巡狩告所過山川 平蕩寇賊宣露布 遣使營軍將 皇帝講武 皇帝田狩 皇帝射於射宮 皇帝觀射於射弓 制遣大將出征有司宣于太社 制遣大將出征有司告於太廟 制遣大將出征有司告於濟太公廟 仲春祀馬祖 仲夏享先牧 仲秋祭馬社 仲冬祭馬步 合朔伐鼓 合朔諸州伐鼓 大讎 諸州縣讎
宋史	禡祭 閱武 受降獻符 田獵 打毬 救日伐鼓
高麗史 軍禮	遣將出征儀 師選儀 驅日月蝕儀 季冬大讎儀

## 1. 사료(1차 자료)

『尙書』 『周禮』 『禮記』 『詩經』 『荀子』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墓誌銘集成』  
『東國李相國集』 『新增東國輿地勝覽』 『舊唐書』

## 2. 논저(논문/ 단행본)

- 姜 波, 「園丘与明堂: 唐帝國的礼制建筑遺址」, 『중국고중세사연구』 29, 중국고중세사학회, 2013.
- 구산우, 「고려시기 界首官의 지방행정과 위상」, 『역사와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 \_\_\_\_\_, 「부산 동래에서 출토된 새로운 고려기와 명문-기와의 조달, 공공건물로서 오리정과 관련하여-」, 『항도부산』 43,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22.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 김아네스, 「고려시대 지방행정과 목」, 『대구사학』 77, 대구사학회, 2004.
- 盧明鎬,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 한국사연구회, 1999.
- 目黒杏子, 「後漢年始儀禮의 構成에 關する 試論」, 『중국고중세사연구』 39, 중국고중세사학회, 2016.
- 박종기, 「고려 다원사회의 형성과 기원」,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 박종덕, 「고려 인종대 서경천도론과 풍수지리 사상」, 『역사와 세계』 54, 효원사학회, 2018.
- 박종진, 『고려전기 지방제도 연구』, 서울대출판부, 2017.
- 위은숙, 「고려시대의 格과 式」,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윤경진, 「고려초기 三韓 一統意識과 高麗 三京」, 『한국중세사연구』 51, 한국중세사학회, 2017.
- \_\_\_\_\_, 「고려 숙종대 남경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역사』 105, 서울역사편찬원, 2020.
- 이병희, 「고려시기 사냥의 성행과 대책」, 『한국중세사연구』 67, 한국중세사학회, 2021.
-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동양고전학회, 2014.
- 이진한, 「고려시대 수령의 경직 검토」, 『진단학보』 95, 진단학회, 2003.

- 장지연, 「고려 말 조선 초 封建制 理想 속의 首都 인식과 그 위상-천하 질서 속의 봉건과 수도-」, 『서울학연구』 60,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15.
- 정요근, 「고려기 조선전기 수령 중심 군현 편제의 전개와 연속성」, 『역사비평』 120, 역사문제연구소, 2017.
- 정은정, 『고려 開京·京畿 연구』 해안, 2018.
- \_\_\_\_\_, 「고려 중후기 경주 直轄邑의 도시중심성」, 『한국중세사연구』 65, 한국중세사학회, 2021.5.
- \_\_\_\_\_, 「고려 김해의 邑基와 龍神 제례」, 『역사와 경계』 119, 부산경남사학회, 2021.6.
- \_\_\_\_\_, 「10·13세기 初 고려 朝儀 운영」, 『사학연구』 146, 한국사학회, 2022.6.
- 채응석, 「고려 삼한일통의 다원성과 통합성」, 『한국중세사연구』 54, 한국중세사학회, 2018.
- 최봉준, 「고려시대 사회성격론과 다원사회의 구조적 이해」, 『역사와 실학』 67, 역사실학회, 2018.
- 최은규, 「고려시대 현령과 현위의 임명과 운영의 변화」, 『역사와현실』 124, 한국역사연구회, 2022.
- 한정수, 「고려시대 遣將出征儀 및 師還儀의 성립과정과 내용」, 『군사』 110, 한국군사학회, 2019.

## Operation and Status of the Goryeo Mid-term Dakyung

- Focusing on the Foremost Quality

Jeong, Eun-Jeong

The multi-capital was distinguished from other counter units in terms of landscape and physical facilities. The inspector was controlled by the chief inspector and internally under the assistant of the hyang-ri, who administered various administrations and finances of the local society. The tea diameter acts as a bridge connecting the upper and lower parts.

In addition to the hierarchy within the counting hall, there is also a deviation in the level of human and material levels in the direct and subordinate township units within Dakyong. Inside Dakyong, the overcrowding and intensity of the direct eupchi is the highest.

The multi-capital also used the stratified local administration stage of 2.3 and operated without escaping central control. The official ceremonies standardized at the national level correspond to the general duties of local officials who always stay.

The multi-capital of Nanjing, West Kyong, which was established as the site of the Ming Party, was managed in order to decentralize the functions of the Kyongjing and to seek to expand the order of the heavens.

The sacrifices in the hall move from place to place according to the rhythm of the four seasons. The Ming Party gives political justification to the movement of the monarch.

Until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the central centrifugal and local centrifugal were at their best balanced. Accordingly, the solution to the current major social problem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metropolitan area, discrimination outside the economy, and cognitive deficits in local society can be sought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yo county system, such as the flexible adjustment of centrifugal and centripetal parties.

Key Words: The Multi-capital, Landscape, Foremost Quality,  
Upper and Lower Parts. The Order of the Heavens

· 논문투고일: 2023년 3월 20일 · 심사완료일: 2023년 4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3년 4월 24일

